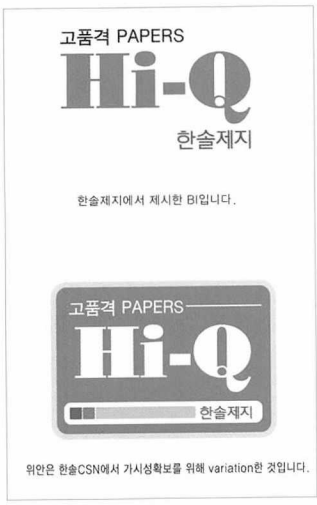
한솔제지, '시그마 세상' 오픈

한솔제지는 지난 8월1일 6시그마 과제 관리 시스템 (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시그마 세상' 을 구축하고 기업 내 분석 및 컨설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pms는 지식축적으로 지식경영기반 제공, 과제진행상황의 효율적 관리, 6시그마 과제의 품질 확보, 중심 인력의 인증/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시그마 세상' 은 사내 직원들의 공모전을 통해 지어진 이름이다. '시그마 세상' 은 직원들의 업무지원, 커뮤니티, 과제 활동들을 통해 이를 공유하며 경영, 기업활동에 적극 반영된다. 시그마 경영은 제조뿐만 아니라 제품개발과 영업 등 기업활동의 모든 요소를 작업공정별로 계량화하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오차범위를 6시그마 내에 묶어두는 것이다. 품질관리 정도를 시그마로 나타내는 이유는 제품과 공정에 따라 달라지는 목표 값과 규격 한계값을 통일해 품질수준을 표시하는 단일한 기준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공정의 품질수준을 비교하는데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품질개선의 정도도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솔제지, Hi-Q 브랜드 마케팅 강화



한솔제지는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추세에 발맞춰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브랜드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브랜드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가 현재 추진하는 브랜드 강화 방안은 'Hi-Q' 브랜드 알리기 사내 캠페인, 새로 도색작업을 실시한 물류차량에 'Hi-Q' 의 BI(Brand Identity)를 삽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물류 차량에 '고품격 PAPER Hi-Q' 라는 BI와 '이 차량은 한솔제지 물류수행중입니다' 라는 홍보성 문구를 동시에 넣어 잠재고객들도 한솔제지의 대표 브랜드인 'Hi-Q' 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 측은 "브랜드 강화 방안의 기본 목표는 한솔제지의 대표 브랜드인 'Hi-Q' 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 친숙하고 친근하게 각인시킴으로써 고객들의 브랜드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며 "이를 위해 한솔제지는 'Hi-Q' 를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목표를 이룰 것이다" 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2차 고객평가단 기술교류회 개최

한솔제지(주)는 오는 9월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로디지털단지내 키콕스벤처센터 3층에서 "2005년도 2차 고객평가단 인쇄기술교류회" 를 개최한다.

이날 기술교류회에서는 윤종태 부경대학교 화상정보공학부 교수를 초빙해 '잉크 건조 트러블 유형 및 해결방법' 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며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 전략' 에 대한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 측은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이 곧 한솔제지와 나아가서는 제지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공감하에 조금이나마 인쇄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바람에서 주요 고객들을 초청하여 인쇄기술에 관련된 주제로 교류회를 정례적으로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신무림제지, '좋은종이' 지령 100호 발행

신무림제지에서 발행하는 제지정보지 '좋은종이' 가 지령 100호 특집호를 발간했다. 국내 제지산업 발전의 밑알이 되고자 창간한 국내 최초의 제지정보지 '좋은종이' 는 지난 1996년 9월 첫 선을 보였으며, 발간 당시 1천부에서 시작했으나 현재 매월 1만부 발행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제지정보지로 발돋움했다.

'좋은종이' 는 펄프재고 및 가격동향, 인쇄용지 생산 및 판매현황 등 기본적인 제지정보를 비롯해 지류유통뉴스, 인쇄출판뉴스, 잉크이야기 등 제지관련 정보까지 종이의 하나에서 열까지 생생한 소식을 담아왔고, 이에 제지사, 증권사, 지류유통사, 인쇄사, 출판사, 디자인사, 학교 등 관련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제지산업 분석을 위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필수 구독서로 큰 인기를 끌면서 제지업종을 새로 맡은 애널리스트들이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구독 요청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다.

김인중 사장은 " '좋은종이' 는 제지정보를 통해 다양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좋은종이' 를 통한 지속적인 제지정보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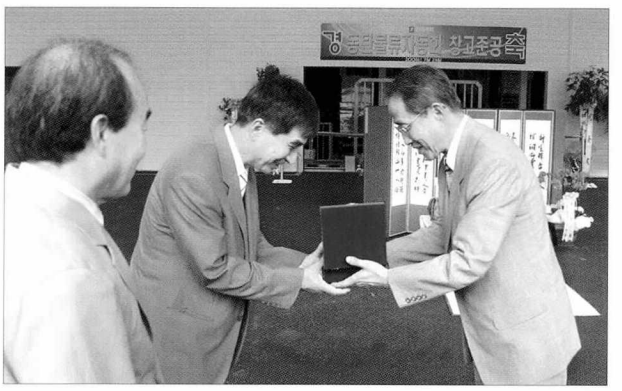
신무림제지, 인쇄골목서 길거리 마케팅 실시

신무림제지가 신제품 '네오아트 SE' 출시 기념으로 지난 8월17일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에서 고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한여름 이벤트 (Summer Event)' 를 실시했다.

을지로, 충무로 지역은 종이 물량의 6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개최된 깜짝 이벤트에서 고객들은 즉석 추첨을 통해 수박, 치킨, 음료 등 푸짐한 간식을 제공받았다. 마케팅팀 노희동 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이 인쇄에 매진하는 인쇄사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착착 인쇄되는 네오아트 SE 사용으로 인쇄도 빨라져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무림제지는 을지로, 충무로 인쇄인들을 대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는 한편 거리 청소 등과 같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종이 거리에서의 길거리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왔다.

한국제지, 동탄 물류센터 자동화창고 준공



한국제지는 지난 7월26일 영업대리점인 한지회 및 한정회 회원, 시공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 물류센터에서 자동화창고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착공된 동탄 자동화 물류창고 준공으로, 동탄물류센터는 총 창고면적 약 1700평에 1만600톤의 저장능력을 가지게 됐다. 또 수송시간이 단축되면서 제품 수송차량 회전률이 높아져 향후 수송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전원중 한국제지 대표이사는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동탄 물류센터에 자동화물류창고가 준공됨으로써 한국제지는 업계 최초로 자동화 창고 4기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면서 "A-프로젝트 완수 이전에 동탄 자동화물류창고가 준공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소회를 밝혔다.

국일, 신호제지 인수 나서

특수지를 만드는 중소 제지업체 국일제지(대표 최우식)가 자산 규모에서 16배가 넘는 신호제지에 대해 적대적 인수 · 합병(M&A)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자산 규모가 400억원에 불과한 국일제지는 최근 최대주주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대표 이충식) 특별관계사에서 415만주(253억원)를 인수한 것을 비롯해 신호제지 지분 19.81%를 확보하고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국일제지는 지분인수 목적을 '경영참여' 라고 명시해 적대적 M&A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아람측 지분을 합쳐 공동경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삼원장학재단, 제3기 장학생 선발

(재)삼원장학재단이 전국대학 시각디자인학과를 대상으로 제3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난 8월26일 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에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학생들로부터 포스터 작품을 제출받아 삼원페이퍼갤러리(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9월10일까지 '삼원장학재단 제3기 장학생 작품展' 을 개최한다. 삼원장학재단은 특수지류 전문기업인 (주)삼원특수지의 이명우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디자인 업계에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3년 초 설립됐다. 이 재단은 시각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총 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디자인 및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올해부터 열리는 장학생 작품전시회는 창의적 사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디자이너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 작품제작비를 지원하고 직접 제작한 디자인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유주제의 포스터 작품 25점을 선보일 예정이며, 매년 장학생 선발과 함께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지업계 사업다각화 모색

백판지 전문업체 세림제지가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화장지 전문기업 모나리자는 구두업체 엘칸토를 인수하는 등 몇몇 제지업체들이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백판지 전문업체 세림제지(대표 이동윤)는 최근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 영국 아크렛사에 148억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50%를 취득했다. 아크렛사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광구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아크마이의 최대주주다. 세림제지는 이에 앞서 올해 1월에도 공연장 운영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이엔티글로벌에 7억원(지분율 22.78%)을 투자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왔다. 화장지업체 모나리자(대표 김윤수)도 KTB네트워크와 손잡고 지난 7월26일 법정 관리 기업인 엘칸토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모나리자는 전체 인수자금 174억원 가운데 123억원을 투입해 지분 70.8%를 취득할 예정이며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모나리자는 지난 3월 P&G의 자회사인 쌍용제지의 화장지부문을 700억원에 인수해 전방위로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